

# “자동차 의무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

### 전주시, 시민 안전 도모 위해 가입명령서 발송 등 가입 독려·홍보

생활기초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사고에 의한 부상, 사망, 재물파손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명령서를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안내하는 등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무보험 가입 기간을 넘길시 10일 이내 지연 1만5000원, 최장 158일 지연 시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시는 시민들의 부주의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에 관심을 두고 홍보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의무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 시내 주요 장소 38곳에 게시하고, 모바일 전자 고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기간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노력에 대한 결과로 의무보험 가입률 3.1%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전주시 대중교통본부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선제적 안전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건물 관계인의 소방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소방시설 훼손 행위를 근절하는 제도다.

신고포상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현장 확인 후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덕진소방서 예방안전팀(063-250-4238)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덕진소방서 노정엽 방호구조과장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향교 유림, 튀르키예·시리아 피해복구 지원

전주향교는 22일 6·25 한국전쟁 당시 많은 병력을 파견한 ‘형제국’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대참사의 아픔을 같이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 홈쇼핑 방송으로 지역 상품 판로개척 돕는다

### 전주시, 4월 4일까지 방송지원 사업 대상업체 2개사 모집

전주시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홈쇼핑 방송을 이용한 홍보를 지원한다.

시는 22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소상공인 지역상품 판로지원’을 위한 전주시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전주시 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시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제품평가, 3차 최종평가 등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종 2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전주시로부터 홈쇼핑 방송 지원금 1500만 원을 지원받아 홈쇼핑 채널인 SK스토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기회를 얻게 된다.

방송매체인 SK스토어는 최종 선정된 지역 상품의 특성과 시너성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송 시간대를 편성하고, 선정된 업체와의 조율을 통해 최종 기획안을 구성한 뒤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주시 민생경

제과(063-281-2375)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SK스토어와 지역상품 판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홈쇼핑 판로 진입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왔다.

심규문 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판로 개척 사업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성장가능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우리 지역 상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 조선 왕실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전주시 어진박물관, 상·하반기 시민·관광객 대상 진행

조선왕조의 본향인 전주에서 왕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전주시 어진박물관은 오는 4월~5월, 9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왕실문화 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왕실문화 클래스에서는 △궁궐 잔치 속 잔치상을 꾸며보는 한지로 만든 꽃 ‘상화’ △국빈 접견, 궁중 연향, 궁중 제향 등 공식적으로 시행된 왕실의례인 ‘궁중다례’ △왕실 인물들의 취미와 관심거리 중 하나인 ‘전각’ △왕의 도장인 어보와 기타 기품들을 멋스럽게 포장하던 방식인 ‘궁중포장’ △왕실에서 사용하던 용기 ‘궁중도자기’ △왕실 진상품이었던 한지를 활용한 ‘한지 드림캐처’를 직접 배

우고 체험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교육은 오는 4월 8일과 22일, 5월 13일 총 3회에 걸쳐 전주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각 회차별 교육 2주 전부터 어진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진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31-0190)로 문의하면 된다.

어진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박물관 교육을 통해 많은 분이 왕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갖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주제의 왕실문화 강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 전문가 모집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2023년도 제1차 자산운용 전문가 모집을 한다.

전문가 모집은 ‘전략, 주식, 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본부의 각 분야에 따른 것으로 ‘수석운용역 1명, 책임운용역 6명, 전임운용역 24명’ 등 총 31명 모집 계획이다. 이번 채용 대상은 공단이 인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투자 실무경력을 갖춘 경력직 운용전문가이고 특히, 이번에는 대체투자 분야에서 수석운용역(PO)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서 제출 기간은 3월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채용 과정은 지원자의 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금 운용전문가 채용은 ‘서류전형, 실무면접,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등의 절차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올해 7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외부 전문업체의 평가조사를 거치며, 최종합격자 검증 단계에서는 전력조회, 신원조사 등이 이뤄지고 최종 면접 전, 실무면접을 도입해 운용역의 역량과 전문성 검증에 강화한다.

김태현 이사장은 “기금운용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이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엄익준 완산구청장, 생태공원화 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앞으로 완산구 관내 화장실이 현대화 사업에 의한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로 바뀐다.

22일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중산5길 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방문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완산구 관내 10개소 화장실에 대한 시설노후화 및 남녀공간 미분리에 따른 ‘공원이용률 저하, 치안상 위험’ 노출에 주민들의 지적이 오갔다.

그동안 완산구 관내 화장실 57개 중 중산5길공원 등 10개소가 시설노후화 및 남녀공간 미분리로 공원이용률이

저하되고 치안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되어왔다.

엄 청장은 민원 해소를 위해 82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 누구나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화장실 주변화단식재 등 환경정비로 생태공원화를 추진한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시민들이 공원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적극 기하겠다”고 현장점검 의지를 밝혔다.

/김영태 기자

